"5·18 기억하고 민주주의 생각하라" 전국 100여 곳에 '오월 걸상' 세운다

5·18 재단 위원회 출범

5·18민주화운동과 1980년 이후 진상규명투쟁 과정에서 희생하거나 헌신한 열사들을 기억하기 위한 '오월걸상'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관련기사 6면〉

5·18 기념재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 앞에서 오월걸상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9일 밝혔다. 출범식이 열리는 기독교회관은 고 김의기 열사가 1980년 5월 30일 5·18 광주 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투신한 장소다.

오월걸상은 5·18의 민주주의 정신과 인권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 설치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소녀상처럼 5·18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써 전국 100여 곳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오월걸상은 동상 등 기존의 기념물과 달리 시민 누구나 친근함을 느끼며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기념물로 조성된다.

오월걸상 설치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위원회의 인증을 거쳐 각자 형태나 크기 등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며, 이미 설치된 걸상에 오월걸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

오월걸상은 국민주권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 경내에 처음 설치될 예정이며 오는 5월 18일 이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청 앞 광장, 광화문 광장, 부산, 대구 등 전국에 오월걸상 100여 개를 오는 10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오월걸상위원회'는 발기인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5·18 학살 가해자나 광주 학살 부역자를 제외한 정부 인사,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문화예술계, 학계, 일반 시민은 물론 1980년생이나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할 계획이다. 또, 제작설치를 위한 시민모금도 진행한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6일 오월걸상위원회 공동대표로 천주교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와 홍세화 장발장은행장, 조은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오월걸상 조성 사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의미와 정성을 담아 만들 계획이며, 모든 시민이 5·18 그날을 기억하고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칼 빼든 檢·방어막 친 朴…뇌물 증빙서 승부

박근혜 소환 D-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2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 전 대통령측 사이에 긴장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물증·진술을 지렛대 삼아 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3개 범죄 혐의 가운데 ▲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반박한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처벌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는 조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측면 지원하고 그 대가로 433억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약속받은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모르쇠' 입장을 보이거나 '아니다'며 부인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최씨가 삼성에서 자금 지원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게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다.

총수 사면이나 면세점 사업권 등을 대가로 SK·롯데에서 받은 재단 출연금이 대가성 뇌물인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의 경우 지난 18일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은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도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최씨와 짜고 재단 설립부터 모금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본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측은 문화 융성과 한류 확산, 체육 인재 양성이라는 정부 시책에 협조해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역시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이다. 검찰은 특검 수사 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윗선'으로 의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다만, 변호인단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선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돼 사실관계나 법리가 어떻게 확정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이틀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경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포토라인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박근혜' 폭 7m 포토라인에 선다

육성 소회 밝힐지 주목

2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취재진과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파면 직후 처음으로 육성으로 수사에 임하는 소회나 본인의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소환을 이틀 앞둔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들은 일요일임에도 대거 출근해 소환 조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검찰은 청와대 경호실 및 기자단과 협의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출입문 양옆으로 포토라인을 미리 설치했다.

두 포토라인 사이의 간격은 7m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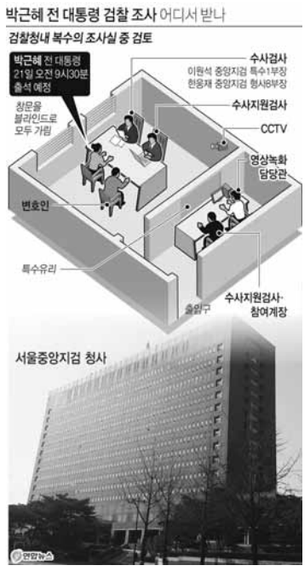
포토라인 양옆으로는 근접취재가 허용된 100명 안팎의 내·외신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순간을 기다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청사 현관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다섯 칸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계단이 끝난 지점에서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불과 5m다.

청사 내부에는 취재진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이 계단을 오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거나 소회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두 대통령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수사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지는 만큼 검찰과 경호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극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간 진도개, 고향으로 보내야"

대통령 탄핵으로 외부 분양 처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취임 선물이었던 진도개 희망이(수컷)·새롬이(암컷)를 고향 진도로 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청와대에서 지내며 새끼를 7마리나 낳아 기르면 귀하신 대접을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외부단체 등에 분양됐거나 될 처지에 놓였다.

진도 주민들은 희망이·새롬이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저로 함께 가지 못했다는 소식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특히 '퍼스트 독(first dog·대통령 반려견)'이라는 명찰이 붙여진 채 프리미엄 번식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3년 희망이·새롬이를 키우다 서울도 보냈던 김기용(56)씨도 "탄핵 이후 희망이·새롬이까지 천대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잘만 키워준다면 무슨 걱정이겠냐"면서도 다시 키우고 싶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와함께 외부 반출 진도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도에서 자라던 진도개가 팔려 섬 밖으로 나가면 되돌아오더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는다. 천연기념물 보호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없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라도 진도를 벗어나면 같은 이유로 천연기념물 지정에서 취소된다. 희망이·새롬이는 강아지(생후 50일)때 서울로 보내져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지 못한 채 진도에서 나갔다.

진도 주민들은 희망이 새롬이가 고향에 돌아 온다면 '외부 반출 진도개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차제남 진도군 진도개사업소장은 19일 "진도개가 진도 밖으로 나가면 천연기념물 지정 자격을 상실하지만 특별한 경우인 희망이와 새롬이에 대해서는 천연기념물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 1,890㎡ 매 55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861㎡ 매15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1천(보5000만,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 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완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